

“웃어른 공경하는 풍속 널리 확산되길”

2011년 간성향교 기로연 개최 ... 문묘배례·계수배·헌작례 등

간성향교(전교 윤근호)는 지난 4일 오전 10시 금강농협 2층 회의실에서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키고 도덕적 가치관 확립을 위해 2011년도 간성향교 기로연을 개최했다.

지역 어르신들과 유림, 기관·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로연에서는 문묘배례, 계수배, 헌작례, 효자효부 시상, 오찬 및 연회 등이 열렸다. 읍면별 투호놀이 및 율놀이와 흥겨운 사물놀이 공연도 펼쳐졌다.

기로연은 조선 태조 3년 임금의 명에 따라 기로소를 설치하고, 지역 목민관이 1년에 한번씩 70

세가 넘는 정2품 이상의 노신들을 특별히 대우하던 것에서 유래했다.

고성군은 기로연을 통해 잊혀져 가는 우리 전통의례를 재현하고 현대인에게 전통적 문화와 윤리도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며 웃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일깨우고자 해마다 이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간성향교 윤근호 전교는 “전통적으로 행해져 오던 기로연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노인을 공경하는 풍속이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지난 4일 오전 10시 금강농협 2층 회의실에서 2011년도 간성향교 기로연이 열렸다. 원내는 율놀이 모습.

고성신문 구독신청 ☎681-1667

원광연 기자의 낱말 맞추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에도 많이 사용되죠. 14. 국회의정연수원이 들어설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마을. 15. 지구 표면의 상태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이를 약속된 기호로 평면에 나타낸 그림. 17. 적과 직접 맞붙어서 총검으로 치고 받는 싸움. 18. 임금이 흑하여 나라가 기울어져도 모를 정도의 미인이라는 뜻으로, 뛰어난게 아름다운 미인을 이르는 말.

세로열쇠= 2. 동남아시아 보르네오 섬 서북 해안에 있는 작

가로열쇠 = 1. 애플 CEO로 활동하며 아이폰, 아이패드를 출시해 IT업계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인물이죠. 최근 사망함. 4. 10월26일 선거에서 이 자리를 놓고 한판승부를 펼친 결과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었죠. 6. 파마나 컷트를 할 때 이 곳을 찾죠. 8.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 10. 삼국 시대에 율릉도에 있던 나라. 512년에 신라에 멸망하였다. 11. 주요섬의 단편소설. 000손님과 어머니 13.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식물. 맛사지

은 나라. 1984년 영국에서 독립한 입헌군주국으로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다. 3. 지진 등에 의한 엄청난 해일. 5. 강황, 카레가루의 향신료로 사용됨. 7.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 9. 남아메리카 중남부에 있는 나라로 축구를 통해 잘 알려졌으며, 수도는 아순시온이다. 10.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와 미국. 12. 조선 영조 27년(1751)에 이종환이 지은 우리나라의 지리서. 13. 내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14. 그림을 그리는 데 쓰는 종이. 16. 도백, 강원도는 최문순, 경기도는 김문수.

※낱말 맞추기 코너는 본지 원광연 기자가 직접 문제를 만들어 출제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넣고 싶은 단어나 내용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681-1666)

※정답을 적어 우편(219-803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고성신문사 낱말맞추기 담당자 앞)이나 팩스(☎033-681-1668)로 보내주시면 1명을 추첨해 농협상품권(5천원)을 선물로 드립니다. 추첨은 매주 금요일 낮 12시까지 도착한 정답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당첨자는 다음호 신문에 발표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난호(제36호) 정답

●정답자 : 김명준(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279)

동	가	식	서	가	숙		화	진	포
대							수		
문				로	마		분	자	
				댕				승	
	오	징	어					자	
	대						표	주	박
일	미			박	경	리			포
장				장		부			도
춘	향	전		대		동	분	서	주
몽				소				론	